

2019 새 설계

권오봉 여수시장

“지역경제 활력 회복·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조성 총력”



“지난 6개월 동안 시민중심 소통행정과 균형발전에 매진한 만큼 새해에는 6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효과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조성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권오봉 시장은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9년 시청 화두인 ‘도시비전 실행 착수 및 활력 있는 추진’ 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도시발전을 위한 5대 주요 정책을 밝혔다.

권 시장은 “여수 미래 발전비전과 시민 화합 등 지역의 역량을 모으는데 주력한 성과로 국비 4871억원을 확보, 그동안 정제됐던 주요 현안들을 풀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과 화양-적금 연륙-연도교 가설, 석유화학산단 재난대응 통합 안전 인프라 구축,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읍촌2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 주민 숙원사업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시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권 시장은 “이를 위해 인구 일자리과와 경제 전담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기획경제국을 신설했고 올해 여수산단에만 6조 원 이상이 투입돼 대규모 공장 산·증설이 진행된다”며 “이를 통해 발생된 부가가치가 시민 소득향상 효과로 이어지는데 역량

여수산단 6조원 이상 기업투자 효과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질적 성장 집중
섬박람회 유치하고 박람회장 활성화

을 모으고 읍촌 2산단 조기 조성과 추가 산단유지 확보 등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등 238개 사업에 525억원을 투입, 1만26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방침이다.

권 시장은 박람회법 개정 성공과 함께 청소년 해양교육원·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등 박람회장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와 함께 제18차 세계한상대회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픈워터 대회 성공 개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빅스포 유치와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도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력과 더불어 정직한 관광서비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도시 조성 의지도 드러냈다.

권 시장은 “2017년 1500만과 지난해 13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여수의 관광정책이 그동안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선 7기 관광정책은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시민 불편도 해소되는 시민·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질적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불편 해소와 세계 섬 박람회 유치기반 조성, 섬과 연안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시립박물관 건립 본격화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기울인다.

올해 여수시 복지예산은 역대 최고인 379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6%다.

권 시장은 “민선 7기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 배려 중심으로 연령별, 지역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보장과 아이 출산·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확대, 향꾸내 어르신 보금자리 40곳 이상 확충, 치매안심센터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5곳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2곳 확충 등 전 세대가 행복한 문화 복지 허브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권 시장은 교육 정책과 관련 “올해 교육예산을 역대 최고인 116억원까지 늘려 공교육 강화는 물론 혁신학교로 선정된 화양고기 지역 공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올해 석창 산학융합지구 전남도 5개 공과 신설·이

2019년도 주요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
▲여수박람회법 개정 성공, 박람회장 활성화 집중
▲2019년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조성 원년
▲사각지대 없는 행복 복지안전망 구축
▲혁신학교 지원 등 교육과 취업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살기 좋은 정주환경 마련

전과 여수캠퍼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개설 등을 통해 특성학과 육성과 취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여수 소재·주립1지구, 만흥지구 택지 개발과 자산공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명품 정주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역경제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조성 주요 사업과 함께 도시 미래발전을 위한 2035도시기본계획·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선 7기 시청 중심인 시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공감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체감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낭만포차, 예정대로 거북선대교 아래 이전 추진

권오봉 시장 “익산국토청과 협의해 안전조치 마련할 것”

권오봉 여수시장은 민선 7기 여수시가 중점 추진 중인 낭만포차 이전 사업에 대해 “익산국토관리청과(이하 익산청)의 지속적인 협의로 화제예방 등 안전조치를 강구,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으로 낭만포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7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익산청이 안전문제로 낭만포차 이전에 대해 난색을 보인 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낭만포차 이전 문제는 현재 익산청과 시의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 도로법 시행령에는 고가도로 하단에 인화성 시설을 못하게 돼 있지만, 거북선대교는 23m 높이의 해상 교량이어서

고가도로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이어 “서울 노원구에 가면 행인이 많은 고가도로 아래에 LP 가스가 아닌 전기 시설을 해서 허가 난 포장마차 사례가 있다”며 “익산청에서 제기한 위험 요소도 세심한 조치를 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수시는 종포해양공원에 위치한 여수 밤바다를 대표하는 낭만포차가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발전 효과를 거둔 것과 달리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와 소음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지난해 말 여론조사를 거쳐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으로 이전을 추

진하고 나섰다.

거북선대교 관리기관인 익산청과 구도로 협의를 하다 지난달 시의회가 보낸 질의서에 익산청이 불가 방침을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익산청은 시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거북선대교 아래(종화동 301 일원)는 시 소유 도로가 대부분이나 ‘사권(私權)의 제한’ 규정으로 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 종포해양공원에 문을 연 낭만포차는 ‘여수 밤바다’와 함께 주말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부상했으나 쓰레기와 소음, 주차 문제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

여수시가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방식을 물품지원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한다.

여성청소년들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11~18세(2001년 1월 1일~2008

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청소년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다.

법정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여성청소년도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으로, 자격 변동이 없는 한 만18세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위생물품 구입은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별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에서 가능하다.

4일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본인이나 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물품지원 방식으로 여성청소년 1520명에게 6000만원 상당의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외국인주민 활동·체험 기록 모은 소식지 발간

여수시 ‘어깨동무’ 2년마다 발행...영어판도 제작 배포키로

여수시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활동과 체험 기록을 모은 소식지 ‘어깨동무’를 발간했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어깨동무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2년마다 발행된다.

책자에는 외국인주민들의 수기로 올리는 베트남 숙련기능근로자부터 중국 원어민강사, 미얀마 근로자, 중국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강사 등의 글이 담겼다.

외국인봉사단 후원자의 기고문과 외국인지원사업,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주요 행사 등도 포함됐다. 외국인주민들의 수기는 모국어로도 실려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생활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소식지 발간을 통해 외국인주



여수시가 발간한 외국인 소식지 ‘어깨동무’ 표지. <여수시 제공>

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사회 통합도 모하고 있다”며 “영어판으로도 제작해 각국 대사관과 유관기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역 외국인주민은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754명으로 전남도에서 가장 많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스레이저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